Database Project 1-1 Report

2013-11431 정현진

1. 프로젝트 구현

PRJ1-1 은 스펙에 명시된 EBNF 문법을 JavaCC 문법에 맞춰 옮겨 적는 작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난해한 부분은 없었다. 구현하면서 까다로웠던 부분은 일부 Token 의 정의 순서와 Lookahead 정도가 있었다.

1-1. Token 의 순서

JavaCC 는 중복된 정의가 있는 token 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칙을 따른다.

- 1. Input stream 에 가장 길게 매칭이 되는 토큰을 선택한다.
- 2. 같은 길이로 매칭이 될 경우, 먼저 정의된 토큰을 선택한다.

토큰을 정의하면서 규칙 2 번을 자주 고려해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규칙 2 번이 적용되었다.

- 1. Keyword 로 사용되는 토큰들과 〈LEGAL IDENTIFIER〉의 순서: 〈LEGAL IDENTIFIER〉에 Keyword 토큰들을 쓸 수 없으므로, Keyword 토큰들이 우선 순위가 높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LEGAL IDENTIFIER〉보다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2. 〈LEGAL IDENTIFIER〉와 〈ALPHABET〉의 순서: 〈LEGAL IDENTIFIER〉가 〈ALPHABET〉보다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길이 1 의 문자가 입력될 때 해당 문자가 〈ALPHABET〉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 3. 〈INT_VALUE〉와 〈DIGIT〉의 순서: 2 번과 마찬가지로 〈INT_VALUE〉가 〈DIGIT〉보다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4. 한 글자 특수문자들과 〈NON_QUOTE_SPECIAL_CHARACTERS〉의 순서: 한 글자 특수문자들이 〈NON_QUOTE_SPECIAL_CHARACTERS〉로 선택되지 않기 위해서 한 글자 토큰들을 먼저 정의해 두어야 한다.

1-2. LOOKAHEAD

문법 명세 상 LOOKAHEAD 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

⟨COLUMN IN TABLE⟩ ::= [⟨TABLE NAME⟩ ⟨PERIOD⟩] ⟨COLUMN NAME⟩

위와 같은 표현이 여러 번 중복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해 해당 표현을 〈COLUMN IN TABLE〉으로 따로 정의해주었다. 위의 표현에서 〈TABLE NAME〉과 〈COLUMN NAME〉은 정의상모두 〈LEGAL IDENTIFIER〉 토큰이므로, 판별하기 위해 2 번의 LOOKAHEAD 가 사용되었다.

또한, 〈PREDICATE〉을 파싱할 때 최대 4 번의 LOOKAHEAD 가 필요한데, 이는 Parser 의 성능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해 LOOKAHEAD 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PREDICATE〉과 연관된 표현들의 문법을 재정의하였다.

위에 정의한 (COLUMN IN TABLE)을 사용해(PREDICATE)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PREDICATE⟩ ::= ⟨COLUMN IN TABLE⟩ (⟨COMP OP⟩ ⟨COMP OPERAND⟩ | ⟨NULL OPERATION⟩)

| (COMPARABLE VALUE) (COMP OP) (COMP OPERAND)

여기서 〈PREDICATE〉의 OR 의 좌, 우의 표현들을 묶어서 재정의하여, 최종적으로 〈PREDICATE〉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PREDICATE⟩ ::= ⟨COLUMN IN TABLE PREDICATE⟩ | ⟨COMPARABLE VALUE PREDICATE⟩

⟨COLUMN IN TABLE PREDICATE⟩ ::= ⟨COLUMN IN TABLE⟩

(((COMP OP) (COMP OPERAND)) | (NULL OPERATION))

⟨COMPARABLE VALUE PREDICATE⟩ ::= ⟨COMPARABLE VALUE⟩ ⟨COMP OP⟩ ⟨COMP OPERAND⟩

위와 같이 $\langle PREDICATE \rangle$ 표현의 문법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LOOKAHEAD 의 수를 4 회에서, $\langle COLUMN\ IN\ TABLE \rangle$ 에서만 발생하는 2 회로 줄일 수 있었다.

1-3. 기타

문법 명세에는 〈SPACE〉 토큰이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SPACE〉 토큰을 정의하면 해당 문자열이 〈SKIP〉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에러가 나타나므로, 〈SPACE〉는 따로 토큰을 정의하지 않고 " "문자열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토큰을 정의할 때 production 부분에 사용되지 않는 토큰들은 이름에 #을 붙여 private 으로 구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CLI 환경에서 테스트 도중 Ctrl+C 혹은 Ctrl+Z 를 입력하면 파서에서 무한 에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EOF〉 토큰에 대한 처리를 'exit;' 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었다.

2. 가정한 것들

우선 KEYWORD 토큰에서 2 단어로 이루어진 토큰(ex: 〈CREATE TABLE〉)을 한 단어로 이루어진 2 개의 토큰으로 분리했다(ex: 〈CREATE〉〈TABLE〉). 사용자가 첫 단어를 입력한 뒤 Enter 를 입력할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다.

또한 틀린 토큰을 입력하고 enter 를 입력하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구현했다. Enter 를 입력한 순간 이건 줄의 입력 값은 바꿀 수가 없으므로, 이건 줄에 잘못된 값이 입력되었다면 유저가 향후 입력하는 값과 관계없이 항상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빠르게 에러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받는 것이 사용자 경험에 더 좋을 것 같다고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Parser 클래스에서 출력까지 담당하는 것은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을 위반하므로 따로 출력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향후 프로젝트의 스펙이어떻게 주어질 지 알 수 없어 우선 뼈대 코드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출력하였다.

3. 구현하지 못한 내용

User Prompt 출력에 대해, 이상적인 출력은 결과 라인에는 prompt 가 출력되지 않고, 결과 출력이 모두 끝난 뒤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용자가 알 수 있게 prompt 를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했다. 문제는 한 줄의 입력에 하나의 query 만 존재하는 경우 처리하기가 쉽지만 Query Sequence 에서 여러 줄의 출력에 prompt 를 모두 출력시키지 않는 것은 현재 프로젝트 구조상 어려웠다. '₩r' 문자를 〈RETURN〉 토큰으로 지정해 모든 토큰의 정의 뒤에 (〈RETURN〉)*을 붙여서 구현해보았지만, 이 방법 또한 특정 토큰 이후 '₩r' 문자가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JavaCC 에서 지원하는 Lexical state 를 사용해서 시도해 보았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현재 모든 출력에 대해 prompt 가 출력되지 않게 구현했다. 하지만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출력문이 나온 후 prompt 가 출력되지 않는다. 다만 파싱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Syntax Error" 출력 후 파서가 다시 시작되므로 그 때는 다시 prompt 가 출력된다.

4. 느낀 점

컴파일러 수업을 들을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싱을 한 적이 있는데 JavaCC 를 이용하여 파싱을 해보니 구현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 Lookahead 미사용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컴파일을 할 때 Warning 으로 알려주는 것도 파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